

그리스도의 충고와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새로워진 훈련을 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짐으로써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상속받음

5/6 월요일

아침의 누림

출 3:8

8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히 3:12

12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무도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출 3:14, 17

14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는 -이다’이다.” 그분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이다’이신 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여라.”

17 내가 말하건대 나는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너희를 이끌어 내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 3:15-19

15 성경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을 노여우시게 하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16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분을 격노하게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17 또 하나님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를 언짢아하셨습니까? 죄를 지어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뒹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18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를 하셨습니까?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19 우리는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신 목표는 그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 그 땅의 풍성을 누리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 구속받고 이집트의 학정에서 구출받아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려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였는데(히 3:7-19), 이는 그들의 악행과 불신 때문이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목표에 이르렀고 좋은 땅에 들어갔다(민 14:27-30). 이것은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사탄의 속박에서 구출받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 안으로 이끌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부름의 목표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빌 3:12-14)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현시대에 그분의 표현이 되고 왕국 시대에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는 것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마 25:21, 23). 이것은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7, 45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은 악한 보고를 들고 돌아왔다. 그들은 한편으로 그 땅이 대단히 좋다고 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며, 성들은 요새화되어 있고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결단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고, 정복하려고 한다면 완전히 패배하여 삼켜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주 많은 때에 악한 자 원수는 우리 안에서 똑같이 말한다. ... 나는 여러분이 이 장들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그가 여러분의 귀에 이런 말을 속삭일까 봐 염려된다. “그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라. 그 땅은 너의 능력으로는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다. 너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작은 마귀는 치명적인 독을 주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결코 그의 말을 믿지 말라. 사탄은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그 성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요새화되어 있다. 너는 패배할 것이다. 너도 그것을 알고 있잖아.”라고 말할 것이다. 히브리서 3 장은 이것을 가리켜 ‘불신의 악한 마음’이라고 말한다(12 절). 그것은 악한 자에게 점유당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악한 마음이라 불린다. ... 우리는 “주님, 저는 선한 마음,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당신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훨씬 더 크시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은 내 안에 계신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능력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또 꿈꾸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본을따르자. 그들은 믿음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민 13:30)라고 말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모든 불신을 피하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 ... 어느 날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은 “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누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난 안 돼. 난 결코 누릴 수 없을 거야.”라고 자신에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불신의 악한 마음이다. 참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불신을 떨치도록 항상 기도하라. 참으로 여러분의 타고난 힘으로는 좋은 땅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부활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고 그분을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한 능력만이 여러분을 좋은 땅 안으로 데려갈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하자.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속 전달되고 있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13 장, 231-23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7-48

5/7 화요일

아침의 누릴

민 14:9

9 다만 여러분은 여호와를 거스르지 말며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후 4:13

13 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고후 3:16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고후 1:20

20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수 14:12-15

12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 말씀하신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리도 그날에 아낙 자손이 저기에 있고, 요새화된 큰 성들도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13 그러자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였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다.

14 그렇게 해서 헤브론이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15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아르바였다(아르바는 아낙 족속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제야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하게 되었다.

민 13:30

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잠잠하게 하면서 말하였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안에서가 아니라 그 영안에서

충분히 강하다.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라. 어제는 너무 어렸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다. 확신이 가득한 믿음으로 믿으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분의 영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온 존재와 그 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 안에 전달하신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과 교통을 유지한다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싸워야 할 몇 번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원수에게나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그 전쟁이 안식일 것이다. 전쟁은 원수에게는 패배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밥이다(민 14:9). ... 매일의 만나로는 충분하지 않다. ... 원수는 우리의 음식이 될 것이며, 그를 삼켜 버릴 때 우리는 만족할 것이다. ... 여러분과 나는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고 전쟁을 하며 원수를 삼켜 버려야 한다. ... 패배한 원수는 가장 좋은 밥이며, 가장 맛있는 밥이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13 장, 233-23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여기서 굶주릴 것인가, 아니면 먹을 것인가?” 여러분이 승리를 위해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의 이기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신선한 양식을 발견하고 활력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다시 한 끼를 먹을 것이다. ... 우리의 밥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며, 우리의 고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의 밥은 또한 아낙 자손, 즉 우리의 길 위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밥으로 취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들의 고기로 취하지만, 아낙 자손을 먹어 본 체험이 없다. ... 여러분이 아낙 자손을 더 많이 먹을수록, 여러분은 더 강해진다. 갈렙은 이것을 보여 주는 인상적인 예시이다. 그는 아낙 자손을 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 팔십 세에도 사십 세 때와 같이 강건했다. ...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사실이다. 많은 형제자매가 생활의 어려움은 많지 않은데도 연약함이 적지 않다. 그들은 아낙 자손을 충분히 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연약하다. ... 사탄이 우리의 길 위에 둔 모든 어려움과 유혹은 우리를 위한 밥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 정하신 수단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곤란한 문제가 나타나기만 해도 마음이 두려움으로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것은 나의 밥이다.”라고 말한다. 모든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먹기만 하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켜 주는 능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분의 약속들을 믿어야 한다. ...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켜 주는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매일 아침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하나님, 어제 저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도 여전히 저를 지키실 것입니다. 저는 제게 어떤 유혹이 닥칠지도 모르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당신께서 저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손에 맡겨져 있다면, 유다서 24 절의 약속 즉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흠 없는 사람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서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걸려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길 위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모른 채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무언가에 부딪쳐 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다. 이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자! ... 우리가 그분의 약속들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의탁한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그분께서 돌아오시는 날까지 지켜질 뿐 아니라 어떤 흠도 없이 보존될 것이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신뢰할 만하며,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37 권, 일반 메시지(1), 3 장, 32-3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13 장;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37 권, 일반 메시지(1), 3 장

5/8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0:14

14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피하십시오.

요일 5:21

21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십시오.

출 32:6

6 그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나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고전 10:5-7

5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광야 여정 중에 흩뿌려져 사라졌습니다.

6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 것은 그들이

악한 것들을 열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7 성경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기록된 것같이, 여러분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겔 14:3

3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우상들을 두고, 자기들을 최악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을 제 얼굴 앞에 두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야만 하겠느냐?

출애굽기 32 장에서는 아내와 아들과 딸의 귀에 걸려 있던 금고리들이 우상, 곧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이용되었다. 사람들은 자기를 치장하려고 귀걸이를 한다. 오늘날의 문화는 자기 치장을 조장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한 물품들을 사는 데 큰 돈을 소비한다.

자기 치장은 우상숭배로 이어진다. 이것이 출애굽기 33 장 5 절과 6 절에서 주님께서 장신구에 관한 계명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신 이유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달지 않았다.” 주님은 장신구에 관한 이러한 계명을 공포하셨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기 32 장에 기록되었듯이 자기 치장은 우상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상의 원칙은 자기 치장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73, 188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탄이 강탈하여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우상숭배에 관련된 또 다른 원칙이다. ...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금과 다른 보물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도록 하셨다. 이 금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했다. 성막의 널빤지들에 금을 입히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금이 필요했다. ... 그러나 그 금이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기 전에, 사탄이 들어와 그 금을 강탈하여 우상을 만드는 데 이용했다. ...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극도로 사랑했다면, 귀에 걸 금고리나 우상을 만드는 데 그 금을 결코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주님의 용도를 위해 금을 간직했을 것이다.

출애굽기 35 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금과 여러 다른 재료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 드리는 첫 번째 물품은 금이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 장에서는 많은 양의 금이 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은 자기 치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전에, 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강탈하여 낭비되게 하려고 개입하려 한다. 이것이 우상숭배에 관한 두 번째 원칙이며,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또 다른 원칙은 사람들이 ...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함축되어 있다. 송아지는 노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림을 위한 것이고, 특히 먹기 위한 것이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송아지는 손님을 대접하는 데 사용되었다. ... 출애굽기 32 장에서 자신들을 치장한 사람들은 누림을 좋아했다. 누림이 그들의 우상이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송아지, 즉 그들의 누림을 숭배한다.

송아지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출애굽기 32 장 6 절에 의해 입증된다. “그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나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 코츠(C. A. Coates)는 그들이 놀았다고 말한다. 주말마다 이 나라의 많은 사람이 다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출애굽기 32 장 18 절에 따르면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고, 19 절에 따르면 ‘송아지를 보았고 또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 이 모든 일이 금송아지 앞에서 벌어졌다. 이 장면은 송아지가 누림을 상징한다는 것과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이 누리는 대상들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락을 갈망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라. 어떤 오락도 포함하지 않는 소위 주일 예배를 찾기란 어렵다. 다양한 오락의 형태들이 군중을 모으는 데 사용되고 있다. 어떤 곳에 오락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오락을 누릴 수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들의 오락을 위해 여러 금송아지를 숭배한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73, 1882-1884 쪽, 메시지 174, 189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73-174, 176-177

5/9 목요일

아침의 누림

요 4:24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출 33:11, 7-15

11 여호와와는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의 아들이자 모세를 시종드는 청년인 여호수아는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7 모세는 천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곤 하였다. 그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진영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8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갈 때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나 각자 자기 천막 입구에 서서, 모세가 천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지켜보았다.

9 모세가 천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천막의 입구에 머물렀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10 백성은 구름 기둥이 천막 입구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천막 입구에서 경배하였다.

11 여호와와는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의 아들이자 모세를 시종드는 청년인 여호수아는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12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주님은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또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13 그러니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부디 저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14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15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님의 임재가 저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희를 여기에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우상숭배에 관한 또 하나의 원칙은 우상숭배는 가면을 쓰는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우상숭배자들은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가면을 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송아지를 숭배하지만, 자신이 주 예수님이나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누림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배는 어떤 누림을 중심으로 하여, 곧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하여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고 노래하고 춤추는 상태에 이르렀다. 몇몇 영국 형제회 교사들은 이것을 지적하며 ... 시나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은 일종의 혼합이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합당한 제물과 함께 합당한 방식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이다. 제물도 옳았고 방식도 옳았지만, 경배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혼합의 의미이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73, 1884-188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출애굽기 33 장 7 절은 “모세는 천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곤 하였다. 그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다. ...”라고 말한다. 주님의 영광은 천막 입구에 있었다(비교 9-10 절). 11 절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 주님을 찾기

원하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진영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에 따라 더 이상 백성들 사이에 거하지 않으실 것임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 진영이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전에 진영 안에 있던 천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에 쳤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것이었다.

그때 이 천막은 하나님의 천막이 되었다. 그 당시 성막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세의 천막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서로 만나기 위한 회막이 되었다.“ 모세가 천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천막의 입구에 머물렀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출 33:9) 만일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 원한다면 모세의 천막으로 가야 했다.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동반자로 인정했다(출 33:11). ... ‘동반자’라는 단어는 우정의 요소들을 포함하지만, 훨씬 더 나아가 친밀한 동료 관계의 사상도 포함한다. ... 만일 여러분과 다른 누군가가 동료라면, 동일한 직종에서 함께 사업을 하며 이익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갖는다. ... 하나님과 모세는 한 위대한 사업의 최고의 동업자였다. ... 모세와 주님은 친밀한 친구만이 아니라 동반자이자 동료이자 동업자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금송아지 숭배에 관해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진 계명들이 적힌 돌판들을 내던져 버린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행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 돌판들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것임을 알았다. 하나님의 동반자인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다. 그러므로 모세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 장 30 절부터 33 장 23 절까지를 통해 중대한 공과를 배운다. 그 공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모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것이다. ... 이스라엘 자손이 가졌던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매우 가까운 사람, 즉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가질 수 있었던 이유였다.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배워야 한다. 오직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공동의 관심사를 가질 수 있고,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77, 1924-1925 쪽, 메시지 176, 1915-1917 쪽, 메시지 177, 193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1권, 성막의 영적인 적용, 2장

5/10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12:2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딤후 3:16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신 8:6-10

6 그러니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7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좋은 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꿀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

8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9 그대는 그 땅에서 모자람 없이 떡을 먹을 것이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돌은 철이며, 그 땅에 있는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을 것입니다.

10 그대는 먹고 만족할 것이며,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좋은 땅을 주셨으므로 그분을 찬송할 것입니다.

출 3:8

8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골 1:12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에서부터 좋은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두 세대가 있었다. …

이것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역시 두 세대가 있음을 가리킨다. 우리는 첫째 세대와 함께 구원을 받았지만, 둘째 세대와 함께 좋은 땅에 들어갈 것이다. 첫째 세대는 우리의 옛사람이고, 둘째 세대는 우리의 새사람이다.

다른 영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첫째 세대는 모두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옛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에 속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두번의 침례를 체험했다. … 옛 세대는 홍해를 통과했지만, 요단강을 건넌 것은 새로운 세대였다.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8, 467-46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홍해를 통과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의 사십 년 동안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다루심이 있었다. 영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기간 동안에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 옛 세대는 광야에 흩뿌려져 사라졌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된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가 산출되었는데, 이것이 변화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한다. … 생명이 자라는 것은 … 옛 세대를 끝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변화와 관련된다. 변화는 옛 세대 곧 옛사람을 끝내고, 새로운 세대 곧 새사람을 입는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 그분을 모든 것을 포함한 땅으로 소유하지는 못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유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산출되어야 한다. …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회복 안으로 들어온 이후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변화이자 생명의

성장이다.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8, 468, 470 쪽)

신명기에서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같은 표현들은 그리스도의 동의어들이다. … 우리는 단순히 그분을 취하고, 그분을 지키고, 그분을 견고히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누릴 것이다.

우리가 취하고 지키고 견고히 붙들고 누려야 할 그리스도는 … 성경 안에 계시는데, 그 이유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119 편이 이것을 입증하는데, 이 시편은 이러한 표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들임을 명시한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다(신 8:3).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곧 그리스도임을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 총합이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고 불리시는 이유이다(요 1:1, 14).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으며,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고, 이 육체 되신 말씀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다(딤후 3:16 상).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으로 내쉬신 것을 들이쉬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들이췄던 그 말씀은 그 영이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 들이췄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여 내쉴 때, 그것은 말씀이다. …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들이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 그분은 분명히 ‘모든 말씀’이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자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신명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54-55 쪽, 메시지 7, 7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8

고후 5:9-11

9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입고 살든지 몸을 떠나서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10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값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11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는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우리가 여러분의 양심에도 밝히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 장 12 절부터 22 절까지에서 모세는 다음의 아홉 가지 문제에 관하여 명령한다. 그것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들의 온 마음과 온 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 더 이상 목을 굳게 하지 않는 것, 그분을 굳게 붙잡는 것, 그들의 찬양이시며 그들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하여 말한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외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포함하여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두려움이 결핍된 상태는 끔찍한 것이다. 그것이 근원이 되어 온갖 종류의 불법이 나온다.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에서 거둘 것이며, 이 수확한 것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신명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75-7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게 된다. 하나님의 길은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 사랑이 우리가 걷는 길이 된다.

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요 14:6)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길이심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길로 삼고 이러한 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로 삼을 때,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따라 그분을 산다. 그분은 겸손하시므로 우리는 겸손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분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로 삼는 것은 그분을 사는 것이고, 그분을 사는 것은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며, 심지어 그분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길로 삼아야 하고, 따라서 그분께서 행동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신명기 10 장 12 절에서 모세는 또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했다. ...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애정을 품고 사랑의 본을 세우셨다. ...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애정을 품고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 모세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관해 말한다. 우리의

5/11 토요일

아침의 누림

신 10:12, 20

12 “이스라엘이여, 이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섬기고,

20 그대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대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굳게 붙잡으며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잠 1:1, 7

1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7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시작이건만 어리석은 이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엡 4:30

30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의 기능의 한 부분인 양심이 우리 마음의 기능의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나타낸다.

신명기 10 장 13 절에서 모세는 계속하여 “그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내가 그대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 우리는 ‘그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날 그리스도를 지키고 우리에게 공급된 그리스도의 풍성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계속하여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더 이상 목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신 10:16)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고 그분의 보배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했다. 즉, 마음의 더러운 것에 할례를 받아야 했다.

신명기 10 장 20 절에서 모세는 “... 그대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굳게 붙잡으며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주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분을 굳게 붙잡기 위해 우리는 “주님, 저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사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 이 절은 ...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관해서도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고 믿는다. ... 오늘날 우리는 모두 주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신명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76-7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명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5-8, 28, 30

5/12 주일

아침의 누림

히 4:2, 6

2 우리도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말씀은 말씀을 들은 그들의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6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 11:1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고전 10:1-4

1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이 다음 사실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2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닷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으며,

3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4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시 106:24-25

24 그들은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25 오히려 자기들의 천막에서 불평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네.

신 8:3

3 그분은 그대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셨으며, 일찍이 그대도 알지 못했고 그대의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

한다는 것을 그대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마 4:4

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37권,
일반 메시지(1), 3장

찬송: 1168 (英) 좋은 땅 예수를 경작하세

1 좋은 땅 예수를 경작하세 일구고 씨 뿌려 물 주면서
실재의 소산이 생산되어 내 안에 수확을 거두겠네
(후렴)

내가 경작해야 할 주는 좋은 그 땅
전부 얻을 때까지 점점 차지하리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있으니
나 오직 주님 자신만 소유하기 원해.

2 결심해 예수를 경작하세 후회하지 않고 수고하리
나 경작할 때에 비 주시리 넘치는 소득을 얻게 하리

3 실지로 예수를 경작하세 영 안에 그 말씀 기도하며
산 기쁨 바름을 따르면서 교회 안에 함께 건축하세

4 경작해 실재를 생산하세 총만한 집회를 누리면서
주님의 산 임재 넘칠 때에 하나님 사람 다 만족하네

5 주 확장 위하여 경작하세 주 거처 안에서 잔치 누려
넘치는 모든 것 주께 드려 풍성을 나누며 기뻐하세